할렐루야 !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사 40:31)

사랑하며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간도 평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조용하나 싶었던 코로나가 다시금 기성을 부리며 어려웠던 시간들로 되돌아 가는 것 같습니다.

2년 반 동안 국내에서나 선교 현지에서 모두가 이 어려움이 지나 가기를 기도하며 지금까지 인내하며 왔었는데 아직 코로나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오는데 이곳 캄보디아는 너무 소식이 없어 오히려 더 불안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나 학사 그리고 학교에 이르기까지 아직 코로나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없이 평소처럼 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던 이 땅 거민들에게는 다시금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소식은 아마도 절망에 가까운 힘든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딘들 쉽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염병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온전히 넘어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지난 18년 간을 돌아 보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겪어야 할 환란이나 어려움이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다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여호화를 앙망하며 의지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고 계실 동역자 여러분을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함께 아래의 사역을 보시면서 계속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u>교회 사역입니다.</u>**

코로나로 인해 흩어졌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긴 하나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대면 예배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낌으로 참석을 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심방과 교회 소식을 통해 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육을 합니다만, 이들이 담대한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 직전에 시작되었던 건축이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기간 동안 잘 마무리 되어진 것은 기적이요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도 본당 내부 시설과 기구들이 많이 필요하여 아래층의 세미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약 100명이 앉을 수 있는 이 방에 교인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니 때로는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골교회(따께오 교회)는 도시 교회보다 더 어려워 교인들을 양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며 구제를 요청합니다. 지혜롭게 이들에게 복음의 순수성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학사 사역입니다.

고아원으로 시작한 학사 사역이 이제 19년째 접어듭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성장하여 중 고 대학을 마치고 졸업한 아이들이 직장을 구하고 심지어 결혼을 한 청년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이제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 대학생이 15명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6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골마을에서 자라다 어릴 때 이곳에 와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도 받고 미래를 꿈꾸며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잘 자라준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사역의 거의 절반(년 4만 5천불)을 지원하던 싱가폴 현지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워 지난 12년간 지원하던 사역 후원이 어려워 짐으로 저희 학사 사역에 큰 도전이 생겼습니다.

이 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할지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4월부터 거제 고현교회(박정곤 목사 시무)에서 신학생들을 비롯한 6명의 대학생들을 후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환 집사님도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후원 교회와 개인 후원자님들께 이 지면을 통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아와 같은 이들을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양육해 주실 것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입니다.

현재 25명의 유치원 생들과 약 60명의 초등학생들이 미래를 꿈꾸며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 오직 학교에서 제공하는 조식과 교재 등에 의존하여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노라면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이들의 모습에서 저희의 어릴 때를 상상해 보곤 합니다. 그나마 저희들은 부모님의 도움이라도 있었기에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곳은 졸업 때까지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하면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심지어는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면 학업을 제쳐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태국이나 타 지역으로 가서 앵벌이 등 돈을 벌게 합니다. 일부 교사들 조차도 사명감이나 실력으로 가르치기보다 현재 생활에 급급하여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마음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기독교인들이 아니기에 더욱 안타깝고 시골이라 교사 수급도 그리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들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 캄보디아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인재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 사역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 시무)와 연제교회(김은중 목사 시무), 변도우 장로님, 정희상 원장님 등께 감사를 드립니다.

4. **<u>가족 이야기 입니다</u>**.

큰 딸 지혜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Educational Director로 섬기고 있습니다.

10년여 동안 캄보디아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다가 다시 한국에 재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주님의 은혜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혜는 결혼하여 캐나다에서 병원 근무를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와 헌물로 이곳을 함께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곳 캄보디아에서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건강하여 잘 버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울러 교회 2층 본당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50개의 의자와 음향 시설, 여름 뜨거운 더위를 날 수 있는 냉방시설(에어컨, 선풍기) 등 필요한 기구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도록

<u>가격은 의자 : 8000불, 냉방시설 : 12,000불, 음향시설 : 5,000불 등 입니다.</u>

혹시 교회 헌물을 위해 후원해 주실 분들은 아래 구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u>국민은행 760-21-0030-568 이근희</u>

한국은 완연한 여름으로 접어들어 더운 날씨를 경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날씨와 함께 확산되는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잘 지켜 나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육간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샬롬 !

캄보디아에서 이 근 희, 송 민 수 선교사 드림